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정서인식, 정서수용 및 양육태도 간의 관계 : 저소득가정과 중류가정을 중심으로

박 소 은* 남 은 영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아동심리전공

본 연구의 목적은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정서인식과 정서수용 및 양육태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만 3~5세 자녀를 둔 저소득가정 20가정과 중류가정 20가정, 총 40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수학습게임을 이용하여 15분간 모-자녀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저소득가정 어머니는 중류가정에 비하여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낮고, 온화함/애정 양육태도를 적게 보이며, 적개심/공격성, 냉담/무시, 일관적 거부, 통제적 양육태도를 많이 보였다. 또한 자녀의 정서에 대한 정서인식 및 정서수용도 낮게 나타났다. 둘째,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온화함/애정 양육태도, 부정적 정서표현성과 냉담/무시 양육태도가 의미 있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셋째,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냉담/무시 양육태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저소득가정, 정서표현성, 정서인식, 정서수용, 양육태도

부모는 아동이 최초로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부모의 정서적 반응을 통해 형성된 정서적 패턴과 틀은 아동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고 어떻게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학습하게 한다(Denham & Kochanoff, 2002; Eisenberg et al., 2003). 그리고 이는 부모

자신과 자녀의 정서에 대한 신념으로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도울 뿐 아니라 아동의 심리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Gottman, Katz, & Hooven, 1996).

이렇듯 부모의 정서적 특성의 중요성이 밝혀짐에 따라, 얼굴표정을 포함한 언어적·비언어적 행

* 교신저자: 박소은, E-mail: soeun@swu.ac.kr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논문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동으로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정서를 표출하는 패턴인 정서표현성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게 되었다(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 특히, 가족 내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정서표현성은 아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도 드러나 전반적인 아동의 환경 외 아동 개인의 정서적 경험, 정서표현능력, 사회적 기술 및 또래관계와도 연관된다(Denham & Grout, 1993; Halberstadt et al., 1995).

실제로 부모가 가정 내에서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고, 적대감이나 그 밖의 다른 부정적 감정표현이 적을수록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더 뛰어나고 잘 적응하며 사회적 지능과 이해, 자아존중감, 애착안정성 및 긍정적 정서 등이 높고 정서조절전략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Garner & Power, 1996; Halberstadt et al., 1995).

정서의 표현 외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는 것 또한 정서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이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지능에도 큰 영향을 주는 (Goleman, 1995/1997) 부모의 정서적 특성 중 하나이다. Salovey와 동료들은 정서인식을 자기 내부의 정서를 인지하고 정의하는 능력으로, 정서 상태를 확인해가는 심리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Salovey, Mayer, Goleman, Turney, & Palfai, 1995).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난 자녀의 정서 상태를 인지하는 부모의 언어적·신체적 행동을 정서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자녀와 시선을 맞추며 자녀의 얼굴표정 및 행동변화에 관심을 보이는지 그리고 아동의 긴장수준, 목소리 톤, 몸짓과 얼굴표정 및 언어적 요구 신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자녀의 정서를 인식하는 과정은 부모 개인의 심리적 건강 뿐 아니라,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아동 또한 자신의 정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Salovey & Mayer, 1996).

정서수용은 다양한 감정 또는 정서의 표출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Kring, Smith, & Neale, 1994).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정서에 반응하는 부모의 언어적·신체적 행동 및 정서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서수용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즉, 자녀의 정서를 지속적으로 공감해주는지, 격려하며 지지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자녀의 정서와 표현에 대해 편안한 반응을 보이는지 등을 드러내는 부모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목소리 톤, 얼굴표정, 몸짓 및 언어 등을 의미한다. Denham과 Grout(1993)은 자녀의 정서에 대해 수용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는 부정적인 정서보다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더 많이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Gottman 등(1996)은 자녀의 정서를 잘 수용하는 부모에게서 양육된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많은 애정을 보이며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할 뿐 아니라 생리적 기능을 잘 조절하고 높은 정서조절능력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자녀의 정서에 대한 높은 인식과 수용능력을 갖춘 부모에게서 양육된 자녀들은 또래집단에서 인기가 있으며 중기 아동기의 학업성취, 아동의 정서적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Gottman, Katz, & Hooven, 199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정서적 특성은 개인적인 측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부모의 역할이 요구되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있는 양육패턴을 통해 자녀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Gottman, Katz, & Hooven, 1996). 이는 저소득가정 부모의 부정적 정서표현

감소와 긍정적 정서 표현의 증가, 특별히 아동의 정서를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감정코치를 중심으로 한 감정코치 부모교육 프로그램(남은영, 2010) 결과를 통해서도 뒷받침되었다. 부모는 자신의 정서 뿐 아니라 자녀의 정서를 보다 잘 인식하고 수용하였으며 이러한 부모의 감정코치능력의 향상이 부모 양육행동에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이로서 부모의 정서적 특성이 양육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정서적 특성과 일반적인 양육태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부모의 양육특성은 가정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Lempers, Clark-Lempers & Simons, 1989; Mackay & Pickens, 1996).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해서 모든 저소득가정 부모가 부정적인 측면을 형성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그들의 부정적 심리상태 초래를 예측한다(Conger et al., 2002). 이는 저소득가정 부모 혹은 어머니가 우울, 피해의식, 낮은 자존감, 무기력, 분노감 등의 정서적 특성을 보이며, 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자녀와의 상호작용 부족, 일관성 없는 양육태도, 강압적 훈육 등의 양육특성을 보인다고 밝힌 연구들(김경희, 황혜정, 1998; 양미진, 남은영, 이수립, 이자영, 허자영, 2009)에 의해 지지된다. Barbarin(1993) 또한 가정의 소득이 부모의 긍정적 정서표현을 저해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 밖에 Mcloyd(1998)는 일반아동에 비해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부모의 정서적 특성이 아동의 발달과 적응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가정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침의 상황으로서 정서를 다루도록 하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거나 자녀와 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 뿐 아니라 정서적 특성인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정서에 대한 정서인식과 정서수용 또한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들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이후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2006년 8월, 전체 인구의 15%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구에 해당함에 따라(보건복지부, 2007), 국내에서도 저소득 가정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과 양육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일반적인 양육태도에 대해 조사하고, 모-자녀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정서인식과 정서수용정도를 관찰 및 측정하여 그 관계를 중류가정과 비교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양육태도 및 정서인식, 정서수용은 저소득가정과 중류가정 간에 차이가 있는가?
2. 저소득과 중류가정 어머니 정서표현성과 양육태도 및 정서인식, 정서수용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3. 저소득과 중류가정 어머니 정서표현성 및 정서인식, 정서수용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어떠한 예측력을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

서울시 성북드림스타트센터 대상가정(9가정) 및 서울시 북부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가정(11가정)의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와 그 아동 20가정과 서울시 내 중류층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만 3~5세 아동과 어머니 20가정, 총 40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드림스타트사업은 각 지역 내 거주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서비스 수혜를 받는 가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북부교육청의 지원대상자 역시 동일기준에 속한다. 이 중 어머니 혹은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와 어머니가 주양육자가 아닌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저소득가정 월수입의 경우, 월 100만원 미만이 5가구(25.0%), 월 100-200만원 미만이 14가구(70.0%)로 가장 많았으며, 월 200-300만원미만의 가구가 1가구(5.0%)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7.2세였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하 6명(30.0%),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14명(70.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중 1명이 중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수준을 보였다. 아동의 성별 구성은 남아가 8명(40.0%), 여아가 12명(60.0%)이었다.

중류가정의 경우, 월수입은 월 200-300만원미만의 가구가 2가구(10.0%), 월 300만원 이상이 18가구(90.0%)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4세로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연령보다 평균 3세 가량 낮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하 2명(10.0%), 대학교 졸업이하가 18명(90.0%)으로, 저소득가정 어머니에 비해 중류가정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았다. 아동의 성별 구성은 남아가 8명(40.0%), 여아가 12명(60.0%)로 저소득가정과 동일하다. 저소득과 중류가정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한 결과, 월수입의 경우 2셀이 5보다 적은 기대빈도를 보여주어 정확도 유의미 검증을 실시하였고, 참여대상과 월 수입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chi^2 = 36.44, df=3, p < .001$).

측정도구

가정 내 자기표현질문지 척도(SEFQ)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측정을 위해 가정 내 자기표현질문지척도(SEFQ: 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 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를 사용하였다. 이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서표현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서표현 환경을 측정한다. 전체 40문항으로 긍정적 정서표현성 23문항과 부정적 정서표현성 17문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리커트식 5점 척도로 평가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을 자주하는 것으로, 전체 척도는 0~20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관련된 예로 “가족구성원들이 해 준 일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한다.”,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사소한 짜증스러운 일에 순간적으로 화를 낸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긍정적 정서표현성 .90, 부정적 정서표현성 .87, 전체 신뢰도 계수는 .85이었다.

모-자녀 상호작용에서의 어머니 정서인식 및 정서수용 측정 도구

Katz와 Gottman(1986)이 개발, Nahm(2006)이

한국어로 빈안한 상위정서 인터뷰 평가항목 척도 중 정서인식과 정서수용 차원의 문항을 행동관찰 측정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였다.

관찰은 15분간 실시되었으며 녹화된 자료들은 연구자 외 두 명의 코더에 의해 5분 간격 단위로 평정(총 3번)하였다. 위의 평정된 자료의 각 총점 평균은 본 부모-자녀 상호작용 척도의 점수가 된다. 본 연구의 보조코더들은 아동학전공 학부 학생으로, 연구자는 평정자간 일치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목적 및 연구과정에 대해 차단시킨 후, 관찰범주, 관찰기록방법 등의 코딩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 외 두 명의 보조코더들은 3주에 걸쳐 매주 2회 모임을 갖고, 타 관찰자료들을 통해 코딩방법을 훈련하였다. 코딩훈련과정 동안 어려운 점, 자주 놓치게 되는 부분 및 불일치 부분 등에 대해 논의점을 나누었으며 부족한 부분은 다른 녹화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반복 훈련하였다. 위 코딩훈련을 통해 세 명의 평정자간 일치도 α 가 .70이상임을 확인한 후에 본 연구자료 분석에 임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모-자녀 상호작용척도 평정에 대한 각 케이스의 평정자간 일치도는 .96이었다.

모-자녀 상호작용 척도 내 정서인식차원은 3문항이며, 정서수용차원은 5문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리커트식 5점(1=매우불일치, 5=매우일치)척도로 평정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인식에 대한 점수 범위는 3-15점이며, 정서수용은 5-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인식 및 정서수용정도가 높은 것이다. 정서인식평가 문항과 관련된 예는 “부모는 자녀의 얼굴표정 및 행동변화에 관심을 보인다”이며, 정서수용평가 문항과 관련된 예로는 “부모는 자녀의 정서를 공감해준다” 등이 포함된다. 정서인식 영역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74, 정서수용의 경우 .83이었다.

어머니 수용-거부/통제척도(PARQ/Control)

어머니의 일반적인 양육태도 측정은 Kim과 Rohner(2002)의 부모수용-거부/통제척도(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Control: PARQ/Control)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수용-거부정도와 자녀 통제정도 측정을 통합한 것이다. 이는 많은 타당화 연구를 통하여 그 적절성이 인정되고 있는 도구로서(김성일, 1994; Rohner, 2005), 미국 내 주요 종족집단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집단들을 대상으로 적용된 바 있다(나은숙, 이종인, 2008).

본 질문지는 부모의 온화함/애정(8문항), 적대감/공격성(6문항), 냉담/무시(6문항), 일관적 거부(4문항), 통제(5문항)의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된 리커트식 4점 척도이다. 총 29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보다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온화함/애정에 관한 문항의 예로 “나는 내가 내 아이를 원하고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이가 느끼게 한다” 등이 있고, 적대감/공격성의 경우 “나는 아이가 맞을 만한 일을 안했을 때에도 때릴 때가 있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무관심/방임 문항의 예는 “나는 아이가 도움을 청할 때 무시해 버린다” 등이 속하며, 모호한 거부의 경우, “나는 내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가 알게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제 요인으로 “나는 늘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온화함/애정영역 .61, 적대감/공격성은 .60, 냉담/무시는 .61, 일관적인 거부의 경우 .65, 통제는 .64로 전체 신뢰도 계수는 .68이었다.

절차

연구자는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석 달간

표 1.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n=40)

측정영역	저소득층	중류층	t	df
	M (SD)	M (SD)		
긍정적 정서표현성	78.05(9.37)	86.50(10.07)	-2.75**	38
부정적 정서표현성	45.65(9.80)	45.55(5.59)	.04	38
정서인식	9.65(1.34)	10.73(1.46)	-2.43*	38
정서수용	15.25(2.53)	17.58(1.82)	-3.35**	38
온화함/애정	22.30(2.56)	25.10(2.19)	-3.71**	38
적개심/공격성	10.75(1.89)	9.15(1.93)	2.65*	38
냉담/무시	10.45(2.54)	8.80(1.64)	2.44**	38
일관적 거부	7.00(1.83)	5.00(.86)	4.41***	38
통계	13.40(1.88)	11.10(1.86)	3.89***	38

* $p < .05$, * $p < .01$, *** $p < .001$

각 아동의 가정집 및 센터를 방문하여 모-자녀 상호작용 관찰 및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때, 설문지의 내용이 관찰행동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고려하여 설문지에 앞서 모-자녀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상호작용 관찰측정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새로운 과제를 가르치는 동안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 개발된 교수학습게임을 사용하였다(Nahm, 2006). 이 과제에 사용되는 젠가 블록게임은 자녀 연령의 적합성과 자연스러운 부모의 개입을 고려한 것으로, 15분의 제한된 시간설정은 블록을 옮기는 동안 아동이 가진 타고난 긴장성을 끌어내도록 돕는다. 이 실험의 목적은 젠가 블록 게임을 하는 동안 아동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정서를 인식하고 수용하며, 아동이 긴장 상황을 잘 극복하고 게임에서 성공하게 하려는 부모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다(존 가트맨, 남은영, 2007; 남은영, 2008, 2010). 본 실험은 연구자 외 교수학습게임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 및 사전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실험과정의 통제와 오류방

지를 위한 여러 번의 훈련을 받은 실험보조자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관찰에 들어가기 전, 연구자는 대상 아동이 없는 장소에서 부모에게 게임규칙을 설명한다. 게임규칙은 다음과 같다. 각 층이 3개의 블록으로 구성된 총 18층의 블록(젠가)의 탑, 맨 위는 건들지 않고 그 아래 어떤 층에서든지 임의로 한 개의 블록을 빼내어 맨 위로 쌓는다. 단, 블록을 쌓을 때 본 모양대로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을 맞추어 각 층이 3개의 블록이 되도록 한다. 탑이 쓰러지면 게임은 실패다. 한 번에 한 손만을 사용하여 블록을 옮길 수 있으며, 정해진 15분의 시간동안 8개의 층을 더 쌓아, 총 26층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부모에게 아동이 목표를 이루면 상이 주어짐을 알려주도록 하여 아동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부모는 아동이 탑을 잘 쌓을 수 있도록 언어적 지도만 할 수 있고 물리적인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15분 동안은 탑이 무너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26개의 층을 모두 쌓으면 상을 주되, 26층을 다 쌓지 못하여

표 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정서인식, 정서수용 및 양육태도 간 상관관계 (n=40)

	1	2	3	4	5	6	7	8	9
1.	-	-.16	.41	.07	.30	.19	.30	-.05	.14
2.	-.24	-	-.04	-.30	-.21	.08	.13	-.07	.21
3.	.06	-.33	-	.67**	-.10	.08	-.09	.01	.22
4.	.16	-.31	.78**	-	-.01	.03	-.11	.02	.00
5.	.49*	-.30	.18	.14	-	.07	-.24	.17	-.12
6.	.10	.29	.21	.01	-.05	-	.29	.32	.61
7.	-.03	.61**	.05	.10	-.36	.64**	-	.34	.23
8.	.23	.29	-.03	.13	-.03	.35	.58**	-	.53**
9.	.24	-.16	.00	-.01	.13	.27	-.03	.15	-

* $p < .05$, ** $p < .01$

주. 저소득가정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아래에, 중류가정은 대각선 위에 각각 제시하였다. 1-2는 정서표현성의 하위요인들로 1=긍정적 정서표현성, 2=부정적 정서표현성이다. 3=정서인식, 4=정서수용, 5-10은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들로, 5=온화함/애정, 6=적개심/공격성, 7=냉담/무시, 8=일관적 거부, 9=통제 이다.

아동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부모가 아동에게 게임규칙 설명을 시작함과 동시에 15분의 상호작용을 관찰한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저소득과 중류가정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정서인식, 정서수용, 양육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사용하였으며,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정서수용, 정서인식, 양육태도간 관계 및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소득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정서인식, 정서수용 및 양육태도의 차이

저소득과 중류가정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정서

인식, 정서수용 및 양육태도의 t검증 결과는 표 1과 같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중 긍정적인 정서표현성은 가정의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2.75, p < .01$). 반면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정서인식 및 정서수용정도에서도 저소득과 중류가정 어머니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43, p < .05$). 즉, 저소득가정 어머니가 중류가정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정서인식 및 정서수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저소득가정 어머니($M=22.30, SD=2.56$)보다 중류가정 어머니($M=25.10, SD=2.19$)가 온화함/애정 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중류가정 어머니가 저소득가정 어머니에 비해 보다 수용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3.71, p < .01$). 또한 어머니의 적개심/공격성($t=2.65, p < .05$), 냉담/무시($t=2.44, p < .01$), 일관적인 거부적 양육태도($t=4.41, p < .001$) 세 영역 모두에서 가정의 소득수

표 3. 어머니 정서표현성, 정서인식, 정서수용의 양육태도에 대한 예측력: 저소득가정 (n=20)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F	R^2
온화함 /애정	긍정적 정서표현성	.50	2.17*	1.46	.28
	부정적 정서표현성	-.12	-.49		
	정서인식	.17	.48		
	정서수용	-.29	-.83		
적개심 /공격성	긍정적 정서표현성	.18	.80	1.36	.27
	부정적 정서표현성	.42	1.73		
	정서인식	.63	1.79*		
	정서수용	-.39	-1.10		
냉담 /무시	긍정적 정서표현성	-.04	-.18	3.31*	.47
	부정적 정서표현성	.71	3.48**		
	정서인식	.10	.32		
	정서수용	.25	.83		
일관적 거부	긍정적 정서표현성	.28	1.20	1.13	.23
	부정적 정서표현성	.40	1.63		
	정서인식	-.20	-.55		
	정서수용	.35	.97		
통제	긍정적 정서표현성	.32	1.29	.53	.12
	부정적 정서표현성	-.11	-.40		
	정서인식	.03	.06		
	정서수용	-.12	-.30		

* $p < .05$, ** $p < .01$

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로써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중류가정 어머니에 비해 적개심/공격성, 냉담/무시, 일관적인 거부적 양육태도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통제적 양육태도의 경우에도 저소득가정 어머니($M=13.40$, $SD=1.88$)가 중류가정 어머니($M=11.10$, $SD=1.86$)보다 자녀에게 통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3.89$, $p < .001$).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정서인식, 정서수용 및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정서인식, 정서수용 및 양육태도 간 관련성은 표 2의 대각선

하단에 제시되어있다.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양육태도의 관계는 각 변인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온화함/애정($r=.49$, $p < .01$)이 정적상관을 보였다. 부정적 정서표현성과는 냉담/무시 양육태도($r=.61$, $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정서인식과 정서수용 변인은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양육태도 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중류가정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양육태도 및 정서인식, 정서수용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는 표 2의 대각선 상단에 제시되었다. 중류가정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정서인식, 정서수용 및 양육태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정서표현성, 정서인식, 정서수용의 양육태도에 대한 예측력

어머니 정서표현성과 정서인식 및 정서수용의 양육태도에 대한 예측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있다. 먼저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냉담/무시 양육태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F(1,18)=3.31, p<.05$), 회귀모형 설명력은 47%이다. 그 외 어머니의 온화함/애정, 적개심/공격성, 일관적 거부, 통제적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류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정서인식, 정서수용의 예측력에 대한 분석에서도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만 3~5세 자녀를 둔 저소득가정과 중류가정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모-자녀 상호작용에서 보인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인식과 정서수용, 양육태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각 변인 간의 관계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정서표현성과 정서인식 및 정서수용의 예측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저소득가정 어머니는 중류가정 어머니에 비해 낮은 긍정적 정서표현성을 보였으며, 온화함/애정적 양육태도를 적게 보였다. 반면, 적개심/공격성, 냉담/무시, 일관적 거부, 통제적 양육태도를 많이 보이고 자녀의 정서에 대한 정서인식 및 정서수용정도에서도 저소득가정 어머니가 중류가정 어머니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월 평균 수입

이 높은 가정의 어머니가 저소득가정에 비해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문신과 김광웅(2003)의 연구, 가정의 소득이 부모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긍정적 정서표현을 저해한다는 Barbarin(1993)의 연구결과와도 일부 일치한다. 그리고 저소득가정이 일반가정에 비해 온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낮게 나타난 민하영과 김경화(2007)의 연구 및 저소득가정의 부모가 중류가정 부모에 비해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인 황혜정(1997)의 연구를 뒷받침한다. 또한 저소득가정의 어머니는 아동과 상호작용에서 보다 권위적이며 독단적인 경향이 있다는 연구(Hess, 1970), 계층이 높을수록 처벌적인 반응보다 지지적 반응을 보인다는 Garner, Jones 와 Miner(1994)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로서 만 3~5세 자녀를 둔 저소득가정 어머니가 중류가정에 비해 정서적인 면에서 취약하며 보다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Hanson과 Shreeve(1997)가 자녀의 정서를 보다 잘 인식해주고, 수용적, 지지적이며, 덜 강압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약한 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취약한 정서적 특성과 양육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시급함이 시사된다. 우선 이들의 경제적 향상이 우선되어야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적절한 문제해결 방식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정서적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 외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어떤 문제가 어머니들을 정서적으로 취약하게 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단순히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어머니의 우울, 만성적 스트레스 등 어머니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양육태도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온화함/애정 양육태도를 많이 보이며,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높을수록 냉담/무시 양육태도를 많이 보이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김송자(2002)의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배민정(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증가될 때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그리고 부정적 정서표현이 증가될 때 냉담/무시 양육태도가 의미있게 상승함을 보여준다. Kilpatrick, Bissonette과 Rusbult(2002) 연구에 의하면 긍정적 정서표현은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상대방의 정서반응을 이해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부정적 정서표현은 비합리적인 행동을 야기하고 부정적 대인관계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서표현성이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함을 알 수 있으며,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에 무엇보다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중류가정 어머니의 경우, 정서표현성, 정서인식, 정서수용 및 양육태도 간 어떠한 상관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정서표현을 적게 하는 어머니가 보다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보이고 애정적 양육태도는 더 적게 보인다는 배민정(2008) 연구 외 정서에 대한 인식 및 수용능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 또한 적절하게 표현한다는 연구들(신현균, 2000; 이수정, 이훈구, 1999)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 같은 양상은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먼저, Conger와 동료들(2002)이 제시한 ‘빈곤으

로 인한 가정 스트레스 모델’에서와 같이 저소득가정의 경우,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주양육자의 정서에 영향을 미쳐 좌절감이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며 양육자간 불화를 유발한다. 그리고 이는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초래하는 경로를 갖는다(양미진 외 2009). 반면, 중류가정은 저소득가정보다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접할 많은 기회에 노출되기 때문에 소득 외 다양한 변인들이 주양육자의 정서적 특성 및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완충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 밖에 본 연구의 대상자 수가 적었던 점과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양육태도를 자가평정으로 실시한 반면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인식과 정서수용은 관찰평정으로 이루어진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자가평정 질문지 측정은 대상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에 합당하는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대상자들의 특성은 본 연구의 정서표현성측정 결과에도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관찰평정의 경우에도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정서인식과 정서수용 변인측정을 위한 평정에 참여한 세 명의 평정자가 일치도 α 값이 .96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관찰평정의 단점으로 제기되는 위 요인을 배제시켜볼 수 있겠다. 관찰평정은 질문지에서 측정할 수 없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므로, 자가평정으로 이루어진 자료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분은 어머니의 정서인식과 정서수용을 관찰하기에 짧은 시간이며 5분 간격 단위 평정이 다소 개략적인 위험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행동관찰측정의 한계점 및 변인 간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한 점으로 인해 저소득가정과 중류가정 집단에서 상관의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을 보완하여 모-자녀 상호작용 내에서의 어머니 정서인식, 정서수용, 정서적 반응 모두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된 연구가 이뤄져야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만이 냉담/무시 양육태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높은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어머니의 냉담/무시 양육태도에 작용하는 변인임을 의미있게 설명한다. 이는 부정적인 정서표현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한 어머니의 자녀들이 감정지능을 잘하며, 부모의 강한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부적상관이 있음을 밝힌 우수경(2004)연구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함께 앞서 논의한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양육태도 간 상관 결과를 고려해 볼 때, 긍정적 정서표현성의 증진과 부정적 정서표현성의 감소가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만 3~5세 자녀를 둔 저소득가정 어머니와 중류가정 어머니를 구분하여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정서인식, 정서수용 및 양육태도를 비교함으로써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영·유아기 주양육자와의 관계가 정서 발달에 필수적임에 따라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 증진을 위해 긍정적 정서표현의 증진과 부정적 정서표현의 감소를 중심으로 한 중재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과 중류층 가정을 대상으로 그 연구 대상이 일부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가 모-자녀 정서 상호작용을 비디오 관찰로 수집한 연구로서, 연구대상의 수가 적다. 또한 저소득가정과 중류가정의 어머니 주양

육자 비율을 고려하지 못한 바,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다수의 어머니를 선정하되 어머니 주양육자 비율 또한 고려한 보다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어머니 혹은 아동이 장애를 가졌거나,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저소득가정이 갖는 다양한 특성 및 가정유형을 고려하여 그들의 양육태도와 정서관련 반응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정서관련 변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정서인식, 정서수용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 외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히지 못하여 차후, 이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이 밖에도 이러한 어머니의 다양한 정서관련 요인들이 양육태도 및 자녀의 다양한 발달적 측면에 대한 경로분석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만 3~5세 자녀를 둔 저소득가정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경희, 황혜정(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와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1(1), 12-26.
- 김문신, 김광웅(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6(1), 3-18.
- 김성일(1994). 부모의 수용이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국문화고찰.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3(1), 90-128.
- 김송자(200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

- 원 석사학위논문.
- 나은숙, 이종인(2008). 부모의 자녀수용-거부와 통제 척도에 대한 한국 타당화 검사: 유아 부모용.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3), 215-247.
- 남은영(2008). 아동 수행 결과에 대한 부모-자녀 정서 반응 비교 문화 연구-컴퓨터 행동관찰 분석기법활용. *한국아동학회지*, 29(6), 225-243.
- 남은영(2010). [저소득가정을 위한 감정코치 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연구]. 미발행 연구.
- 민하영, 김정화(2007). 저소득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33-41.
- 보건복지가족부(2007). 2007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민정(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양육태도 및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균(2000).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신체 감각 증폭지각, 및 신체적 귀인이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매개모델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7-32.
- 양미진, 남은영, 이수림, 이자영, 허자영(2009). 저소득가정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 유아기 자녀편. 한국청소년상담원.
- 우수경(2004). 가정환경이 유아의 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4(4), 75-94.
- 이수정, 이훈구(1997). Trait Meta-Mood Scale 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존 가트맨, 남은영(2007).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서울: 한국경제신문.
- 황혜정(1997).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부모의 수용. *교육심리연구*, 11(3), 331-350.
- Barbarin, O.(1993).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of African American children. *Journal of Black Psychology*, 19(4), 381-390.
- Conger, R. D, Wallace, L. E., Sun, Y., Simons, R. L., McLoyd, V. C., & Brody, G. H. (2002). Economic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 179-193.
- Denham, S. A. & Groot, L.(1993). Socialization of emotion: Pathway to preschoolers'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7, 205-227.
- Denham, S. A., & Kochanoff, A. T.(2002).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emotion. *Marriage and Family Review*, 34, 311-343.
- Eisenberg, N., Valiente, C., Morris, A. S., Fabes, R. A., Cumberland, A., Reiser, M., Gershoff, E. T., Shepard, S A., & Losoya, S.(2003). Longitudinal Relations Among Parental Emotional Expressivity, Children's Regulation, and Quality of Socioemotion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9(1), 3-19.
- Garner, P. W., Jones, D. C., & Miner, J. 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 622-637.
- Garner, P. W., & Power, T. G.(1996). Preschoolers' emotional control in the disappointment paradigm and its relation to temperament, emotional knowledge and family expressiveness. *Child development*, 67, 14interactions. *Current Psychology*, 15,

- 223-235.
- Goleman, D.(1997). 감성지능 (황태호 역). 서울: 비전 코리아. (원전은 1995에 출판).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268.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A., Parke, R. D., & Fox, N. A.(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 93-103.
- Hanson, D., & Shreeve, W.(1997). Burnout: confined or widespread.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37*, 145-150.
- Hess, R. D.(1970). *Social class and ethnic influences on socialization.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 2(3rd, ed.), New York: Wiley.
- Katz, L. F., & Gottman, J. M.(1986). *The meta-emotion interview*. Seattle, WA: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Washington.
- Kilpatrick, S. D., Bissonnette, V. L., & Rusbult, C. E.(2002). Empathic accuracy and accommodative behavior among newly married couples. *Personal Relationships, 9*, 369-393.
- Kim, K. & Rohner, R.(2002). Parental warmth, control and involvement in schooling: Predicting academic achievement among Kor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2). 127-140.
- Kring, A. M., Smith, D. A., & Neale,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dispositional expressivenes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934-949.
- Lempers, J. D., Lempers, C. D., & Simons, R. L.(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39.
- Mcloyd, V. C.(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 185-204.
- Nahm, E. Y.(2006).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Kore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its relationship to parent-child interac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Doctoral thesis.
- Salovey, P., & Mayer, J.(1996).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identification of emotion. *Intelligence, 22*(2), 245-267.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P.(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W.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pp. 125-15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cKay, J. M., & Pickens, J.(1996). Inventoried and observed stress in parent-child interactions. *Current Psychology, 15*, 223-225.
- Rohner, R. P. (2005).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4th
Edi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1차 원고 접수: 2010. 07. 13

수정 원고 접수: 2010. 08. 12

최종 게재 결정: 2010. 08. 13

The Relationship of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wareness, Acceptance and Parenting Attitude: A Comparison of Low Income and Middle Income Families

So Eun Park Eun Young Nahm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expressiveness, emotional awareness and acceptance, and parenting attitude of mothers who have children aged 3 to 5 from low and middle income families. For this study, surveys were conducted with the mothers who have children aged 3 to 5 from total 40 families, which consisted of 20 low income families and 20 middle income families in Seoul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using a teaching task that lasted about 15 minutes was observ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showed that the mothers from low income families express relatively lower positive emotion, less warm/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s and more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such as hostility/aggression, indifference/neglect, undifferentiated rejection and control compared to the mothers from middle income families. Low income mothers also showed lower emotional awareness and acceptance with their child's emotion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warm and affectionate parenting attitudes, as well as between the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indifferent/negligent parenting attitudes from the low income mothers. Thir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of low income mothers can predict the indifferent and negligent parenting attitudes.

Keywords: low income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acceptance, parenting attitude